

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| 투자전략/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@kiwoom.com

| 시황/ESG Analyst 이성훈 shl076@kiwoom.com



키움증권

## 미 증시는 휴장, 유럽 증시는 관세 유예 소식으로 강세

#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26일(월)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으며, 유럽 증시는 트럼프의 대 EU 50% 관세 부과 일정 연기(6월 1일 -> 7월 9일) 등에 힘입어 상승(독일 +1.7%, 프랑스 +1.2%, 유로스톡스50 +1.3%).

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이후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, 다수 회원국인 EU와 기한 내에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판단이 주말 중 EU 관세 인상 발언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. 지금은 EU 관세를 1개월 가량 연기하기는 했으나, 증시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유예 만료 시한인 7월 8일(중국은 8월 14일) 전까지 EU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“관세 인상 -> 상대국의 반발 및 통화 -> 관세 부과 연기 -> 협상 재시작”의 과정을 반복해 나갈 것이라는 기본 가정을 유지해나갈 필요.

전일 국내 증시는 장 전 트럼프의 EU에 대한 관세 유예 연기 발표, 원화 강세, 미국발 원전 및 조선 모멘텀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한 가운데, 장 막판에는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대규모 순매수세가 가세함에 따라 급등 마감(코스피 +2.0%, 코스닥 +1.3%).

금일에는 전일 장 후반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성격의 되돌림이 장 초반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장 중에는 달러/원 환율의 추가 하락 여부, 내일 새벽 예정된 미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등 매크로 변수들을 둘러싼 대기 심리에 영향을 받으며 종목 장세로 전환할 전망이다.

현재 코스피는 2,640pt대를 회복하면서, 4월 9일 저점(2,293pt) 대비 약 15%대 반등세를 시현. 특징적인 부분은 코스피 내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(시총 비중 22%대)의 주가 상승에 기대지 않고, 방산(기계 +상사, 자본재 합산 12%대, 조선 5%대)여타 업종의 주가 상승세 만으로 2,600pt대 재진입에 성공했다는 것.

지난 2월 코스피가 전고점(2월 17일, 2,671pt)를 기록했을 때는 반도체의 주가 상승 기여도가 컸음. 당시를 돌이켜보면, 연초 이후 2월 17일까지 코스피가 11%대 상승하는 기간에 기계(+36.2%), 상사, 자본재(+33.3%), 조선(+24.8%) 등 지금의 주도주들은 수익률 최상위권을 차지하기는 했음. 그렇지만 반도체(+14.9%) 역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코스피의 레벨업에 일조했으며, 이 같은 반도체 중심의 강세가 코스피 상승 시 나타나는 일반적인 패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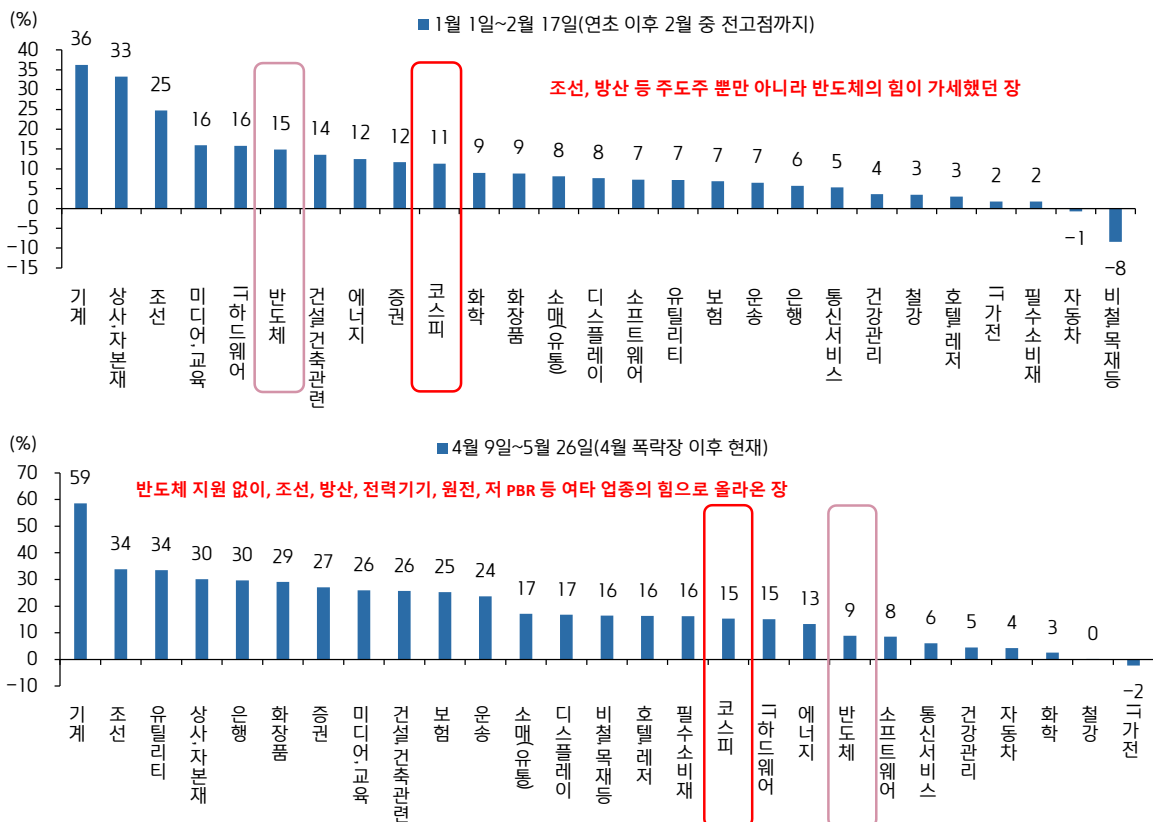
이에 반해 4월 9일 이후 5월 26일까지 상위 업종은 기계(+58.5%), 조선(+33.8%), 유틸리티(+33.6%), 상사, 자본재(+30.1%), 은행(+29.7%) 등 조선, 방산, 전력기기, 저PBR 등 국내 주도 업종 및 주도 테마들이 상위권을 모두 선점. 반도체(+8.9%)도 상승했지만, 코스피(+15.3%)에 뒤쳐지고 있으며, IT가전(-2.3%), 철강(+0.2%), 화학(+2.5%), 자동차(+4.5%) 등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관세 피해주들이 하위권에 집중된 모습.

(다음 페이지 계속)

동시에, 자동차, 철강, IT 가전 등 다른 업종은 그렇다 치더라도, 반도체가 현재 수급 빈집 상태에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가 될 수 있음. 4월 9일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 금액은 840억원에 불과하지만, 반도체 순매도 금액은 1.7조원대에 육박. 기관 역시 같은 기간 코스피 순매수 금액이 2.2조원인 데 반해, 반도체 순매수 금액은 2,200억원대에 그치는 등 코스피 내 반도체의 수급 빈집 현상이 심화 중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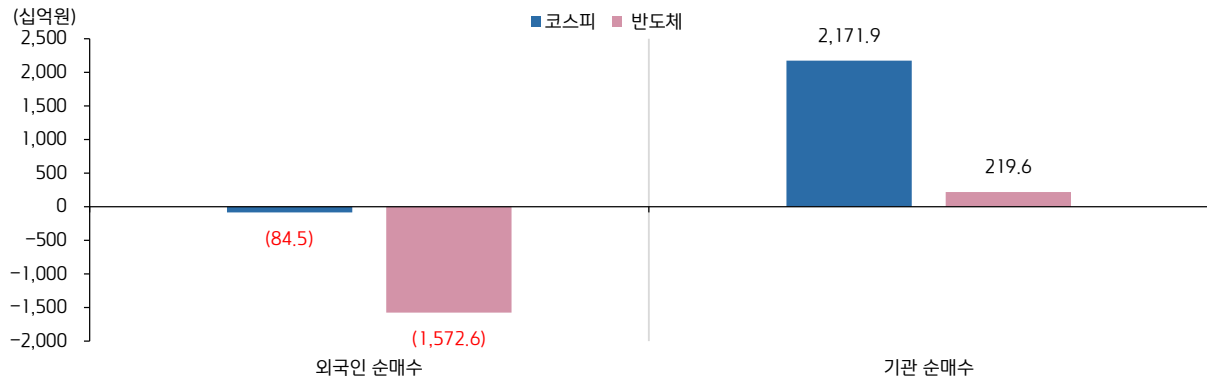
아직 관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, 반도체 포함 관세 피해 수출주들이 수익률 상위권으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간에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채우기는 쉽지 않아 보임. 다만, 최근 방산, 조선, 전력기기, 원전 등 성장 전망이 유효하면서도 현재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주력 업종의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점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. 이것이 반도체 수급 빈집 현상과 맞물리면서 “기존 주력 업종 → 반도체 중심의 관세 피해 수출주”로 일시적인 수급 로테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적절.

1~2월(~17일) 코스피 업종별 수익률 vs 4~5월(~26일) 코스피 업종별 수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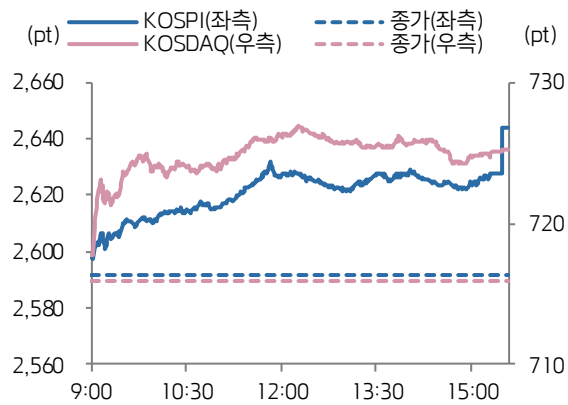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iwise, 키움증권

#### 4월 10일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, 반도체 순매수 금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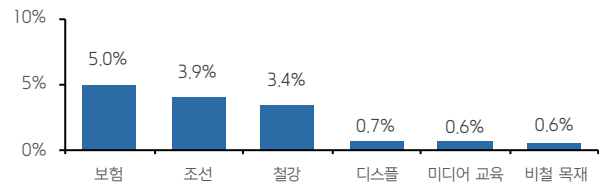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iwise, 키움증권

#### 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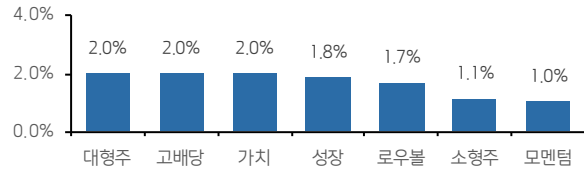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####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DTD(%)	YTD(%)	지수	가격	DTD(%)	YTD(%)
코스피	2,644.40	+2.02%	+10.21%	USD/KRW	1,370.50	+0.29%	-6.91%
코스피200	352.11	+1.98%	+10.79%	달러 지수	98.94	-0.18%	-8.8%
코스닥	725.27	+1.3%	+6.94%	EUR/USD	1.14	+0.22%	+9.98%
코스닥150	1,171.63	+1.59%	+3.7%	USD/CNH	7.18	+0.06%	-2.2%
S&P500	5,802.82	-0.67%	-1.34%	USD/JPY	142.85	+0.2%	-9.13%
NASDAQ	18,737.21	-1%	-2.97%	채권시장			
다우	41,603.07	-0.61%	-2.21%	가격	DTD(bp)	YTD(bp)	
VIX	20.57	-7.72%	+18.56%	국고채 3년	2.347	+1.5bp	-24.8bp
러셀2000	2,039.85	-0.28%	-8.53%	국고채 10년	2.770	+0.5bp	-10.1bp
필라. 반도체	4,702.38	-1.53%	-5.57%	미국 국채 2년	3.991	+0.1bp	-25bp
다우 운송	14,535.58	-0.6%	-8.56%	미국 국채 10년	4.511	-1.8bp	-5.8bp
상해종합	3,346.84	-0.05%	-0.15%	미국 국채 30년	5.037	-0.2bp	+25.6bp
항생 H	8,437.64	-1.7%	+15.74%	독일 국채 10년	2.560	-0.7bp	+19.3bp
인도 SENSEX	82,176.45	+0.56%	+5.17%	원자재 시장			
유럽, ETFs				가격	DTD(%)	YTD(%)	
Eurostoxx50	5,395.33	+1.3%	+10.2%	WTI	61.53	+0.54%	-11.9%
MSCI 전세계 지수	870.35	+0.25%	+3.45%	브렌트유	64.74	-0.06%	-13.26%
MSCI DM 지수	3,813.89	+0.29%	+2.86%	금	3,394.50	+2.13%	+24.94%
MSCI EM 지수	1,170.13	-0.07%	+8.8%	은	33.44	+1.2%	+14.36%
MSCI 한국 ETF	58.96	+1.15%	+15.86%	구리	480.65	+3.4%	+19.37%
디지털화폐				BDI	1,340.00	-0.07%	+34.4%
비트코인	109,619.20	+1.78%	+16.97%	옥수수	459.50	-0.76%	-1.97%
이더리움	2,567.45	+1.73%	-23.28%	밀	542.50	-0.37%	-4.74%
				대두	1,060.25	-0.68%	+2.46%
				커피	361.00	+0.07%	+17.04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## 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5월 2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서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## 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